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3강 공감의 영성

1. 본문개요

예레미야 8:18에서 9:1[히브리어 본문으로는 8:23]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레미야 자신이 겪는 내적 번민(Pathos)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단락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심판과 공포가 아니라 동족 유다를 위한 염려와 비애가 등장한다. 이 백성은 ‘죽음에 이르는 병’(sick to death)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렘 8:22).

이 단락은 예언자의 탄식(8:18-19a 상반절), 백성의 탄식(19a 하반절), 하나님의 탄식(19b절), 백성의 탄식(8:20) 그리고 예언자의 탄식(8:21-9: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락을 잘 보면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끝이 난다. 그 탄식의 순서는 예레미야→백성→하나님→백성→예레미야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짜임새가 보여주듯이 예레미야는 결코 자기 민족의 고난을 냉소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남는 법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낀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렘 8:18),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렘 8:2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렘 9:1).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2.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구약성서의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예언자였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렘 4:19).

예레미야는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 평화 시기에 앞으로 닥칠 전쟁의 소리를 미리 듣고 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레미야의 귀에는 아주 크고 매우 확실하게 들린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은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 그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전쟁의 소리를 앞당겨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작된 전쟁이 아니기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평화 시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곧 닥칠 멸망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벌써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예레미야의 귀에 들린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상숭배로 인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도 들렸던 것이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렘 14:17).

3. 특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한 예레미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는 모습이 벌써 보인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먼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동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야웨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시온신앙)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다윗왕조신앙)”(렘 8:19).

특히 남 왕국에서는 시온신앙과 다윗왕조신앙이 유다 백성의 신앙의 양대 기둥이었다. 시온신앙은 시온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46편에 반영되어 있다.

- 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하나님의 선택]
-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하나님의 거주]
- 6)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난공불락]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영원한 피난처](시 46:4-7).

시온신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1)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2)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3) 시온은 난공불락이고, 그리고 4)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온이 위협해지고 위태로워진 것이다.

다윗왕조신앙은 삼하 7:16에서 언급된다.

“네 집[왕조]과 네 나라[국가]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삼하 7:16).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주하시는 예루살렘(시온)성전과 영원히 왕위가 지속된다는 다윗왕조는 유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시온과 유다 왕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땅히 도와주셔야 할 아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해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따라서 이는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실망과 절망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절망감은 그들이 사용한 다음의 속담에서도 드러난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렘 8:20).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고 확실하게 보였던, 그리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었던 뜻의 이 속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인 주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1차 공격으로 바벨론으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압송당하였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24:10-17에 묘사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직접 관련 된 구절만 보면 다음과 같다.

“14)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 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왕하 24:14-16).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예레미야와 동시에 활동한 바벨론의 예언자 에스겔의 책에 담겨 있다. 유다 왕국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본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웨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겔 8:12).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겔 33:10)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겔 37:11).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족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백성들은 야웨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는다.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이 예레미야애가에 반영되어 있다.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5) 주께서 원수 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건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8)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애 2:1,5, 8, 20).

하지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도 충격이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야웨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면서 더 괴로워하신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렘 8:19b).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에게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성전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 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겔 8:6).

4.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따라서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아웨의 떠나심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자신을 떠남에 대해 통탄해 하시는 아웨의 울부짖음도 듣는다. 예언자란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의 말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의 탄식과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아웨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양쪽의 괴로움을 한 몸에 지니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 서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했다.

예화) 사실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이다. 뉴욕 시의 도시 청년과 인디안 청년이 뉴욕에서 만났다. 뉴욕 도시는 온갖 소음으로 옆 사람의 말도 듣기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인디안 청년은 그 시끄러운 소음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 골목길로 돌아가 벽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음을 발견한다. 시골 청년의 청력이 유난히 발달해서가 아니다. 시골 청년이 동전 몇 개를 땅에 던지자 많은 뉴욕 사람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린이들은 좁느라고 혼잡해졌다. 음성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관심이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할 음성도 들려온다.

5. 공감지수가 영성의 기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에 민감한 것이 예레미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성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의 영성’(Spirituality of Sympathy)은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에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하심이라”(벧전3:8-9).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1907-1972)은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Pathos)을 꿰뚫어 보는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Sympathy)이 이상적 상태이다.”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준다. 공감은 값싼 동정도 아니고 슬픈 연민도 아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고, 함께 느끼는 것이다. 공감지수가 영성의 기준이기도 하다.

6. 나가는 말

공감(共感)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감력’이 곧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알게 되어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 지수’, 이것이 ‘공감의 영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 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공감에 대한 강조의 말로,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는 뜻을 가진 ‘체휼’(體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개역한글판]).

예수님도 체휼, 즉 공감의 영성을 가진 분이셨다.